눈칫밥 전도

(행17:16~34)

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눈칫밥 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눈칫밥 전도

여러분 눈칫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먹는 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눅이 들어 전혀 기를 펴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눈치 밥을 먹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눈칫밥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외국에 살고 있을 때에 아는 지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지요, 폐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칫밥 아닌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오래 머물지 않지요, 그저 하루 이틀 머물고는 또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정말 잘 알려진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을 때,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 신학생들이 그때만큼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알던 지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다니면서 우리 집에 들르게 됐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입장이 되는데, 거꾸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묵어주시는 것이, 그분들이 나를 배려하는 게 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눈치와 배려.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고 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먼저 가도록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 열어 주는 사람이 사장님일 때는 눈치가 되는 것이고, 눈칫밥 먹는 사람 입장이 되는 것이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성분일 때는, 그게 배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칫밥 전도가 있어요. 눈칫밥 전도.
어차피 교회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눈칫밥 먹듯이 전도하는 것이 있고, 정말 세상을 배려하면서 전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눈칫밥 전도를 하는 건지, 배려하는 입장에서 전도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분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교회나 내가 전도한다고 그럴 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전도를 하고 있는 건지, 눈칫밥으로서의 전도를 하는 건지, 배려의 차원에서의 전도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눈칫밥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척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나를 보면, 그래서 그게 눈칫밥 전도인지, 배려 전도인지를 알아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가를 진단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테네에서 사도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위임을 받은 뒤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지금 2차 전도여행 중인데, 이제까지 그 어느 지역에서의 전도에 대한 소개와는 전혀 색조가 다릅니다.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활동 모습이, 완전히 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선 일견하자면, 본문 18절 같은 경우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논할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테네의 분위기에 의해서 전도하는 모습의 색조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테네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철학, 지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라고 아예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철학사를 봐도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는 철학파 중의 하나, 에피쿠로스파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파도 그렇고,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과 과학과, 그러니깐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문화와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의 모든 지역과는 다르게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쟁논을 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어야 되는 분위기로 휩싸여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을 변증해야 되는 차원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조가 달라진 것이에요.
결국 이 아테네의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에 의한 전도가 눈칫밥 전도였을까요, 배려적 차원의 전도였을까요? 이거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장소였어요.
거기서 아레오바고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울을 초청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번 마음껏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울은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이 아테네의 철학적인 분위기와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 접촉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23절에 읽은 것처럼, 바울이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인상 깊게 발견한 게 있는데,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말한 그 '알 수 없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의 제단이 생긴 배경에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빌려 말하자면 그 당시 아테네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우상이 무려 300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 전체에, 3만 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별 신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신상이 아테네 시를 완전히 덮고 있었던 것이에요.
학문이 발달했다는 도시와는 분위기가 안 맞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헤매던 도시에요, 영적인 암흑의 도시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은, 우상이 300개이고 신상이 3만 개라는 것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신들의 리스트 중에서 혹시 자기들이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누락될 수 있는 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고 이름을 기입해 놓은 신의 명단에서 누락된 신이 있을 경우에 그 신이 분노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라는 뜻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은, 300개의 우상과 3만개의 신상의 대열에 속하는 하나의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대열에 속하는 하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로 설교가 마감됩니다.
이 전제 자체가 엄청난 오류라는 겁니다.
300개의 우상의 대열에 속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 3만 개의 신상의 대열에 속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사도바울은 일치 시켰을까요?
눈칫밥을 먹는 겁니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과 쟁논하고 하는 와중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들에게 어필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수준과 학문적 기준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바울은, 에피쿠로스학파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쟁논하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회집하는 장소에서 강연의 기회를 얻자, 그 학문적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역시도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들의 인정을 배고파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이 배고픔, 세상으로부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눈칫밥 전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를 회상하며 쓴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던지,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실신 상태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자기를 돌로 쳐 죽을 만큼 때린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자처합니다.
그런 바울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질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속으로 버려지기 전에 두려워 떠셨던 것처럼.
저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설교를 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어떨 때 설교하고 나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가 하면, 내가 한 설교에서,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 상태를 확인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말 할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말 할 수 없이 두려워.
내가 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안 생깁니다, 그건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한 설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배고파서 전도합니다.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교인 숫자에 배가 고파요.
이럴 때 세상에 전도하는 것은, 다 눈칫밥이 돼버려요.
세상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나가서 커피도 끓여주고, 여전도회 회장이 앞장서서 노숙자들에게 급식 배식도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다 카페까지 만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접촉점을 찾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다 접촉점 찾아요.

근데 이 접촉점이라는 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배고픔으로 전도를 하게 될 때 발견하는 모든 접촉점은, 눈칫밥 전도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장중으로부터 빠져 나가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뭐래요? 당연히 전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그의 부활하심만을 전하는 거지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새삼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입니까? 아테네에요.
지혜의 권하는 말로 전도를 한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왜? 왜 그렇게 얘기 합니까?
그들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학문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전도하는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에 지혜의 권하는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였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배고픔을 갖고 전도를 하면 눈칫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대중문화를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줄 줄로 알고, 교회와의 간격 없이 흐름과 소통이 자유로워질 줄로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교회가 대중문화를 끌어들여서 그들과의 사이에 문턱을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이 미리 들어가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자는 받는 거고, 아닌 자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에 임하는 자세는, 교회 문을 닫으세요! 세상과 단절을 꾀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돈으로 배부르려 하고, 출세로 배부르려 하고, 대중문화를 꽃피워 나갈 때, 문 닫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목사님이 먼저 만족하고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직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제1 현실이 됨으로서 온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세 사람이건, 네 사람이건, 열 사람이건 전도할 생각 하지 말고, 완전히 문 닫고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이 하늘로 만족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만족해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내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커피 끓여 주면 그게 배려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밥을 배식을 해주면 배려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로 내가 완전히 배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배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눈칫밥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소통을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돼서, 교인의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 눈칫밥 전도가 돼버리고, 성령의 장중으로부터 멀어지는 눈칫밥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중문화가 다르면 어때요? 교회 안과 세상이 다르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달라야만 돼요, 또.
근데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미 성령을 떠난 겁니다, 성령을 떠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대중문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를 손에 쥐었을 때 그게, 배려 차원인지 눈칫밥 차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없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 하늘로 만족한 상태가 확인이 되고 나서 대중문화를 붙잡았다면 배려

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서 대중문화를 붙잡았다면 눈칫밥 전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어필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칫밥 전도를 함을 통하여, 성령의 장중으로부터 벗어나, 비신앙적 교인으로서 전도에 몰입하는, 그래서 전도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 버리는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